

2006년 SGI-USA 교학 시험을 위한 요점정리

다음에 나오는 요점들은 2006년 SGI-USA 교학 시험을 위해 마련된 요점 정리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6년 SGI-USA 교학 시험 교재 (9월중에 7개본 호판이나 SGI-USA 웹페이지에서 교재를 구할 수 있습니다 - 편집자 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는 아래의 요점 정리에서 주로 나올 것이고 이름이나 낱자등의 단순 암기보다는 개념이해 위주로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파트 II의 내용들은 니치켄 대성인 어서내용을 중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SGI-USA 교학부에서는 이 요점 정리를 통하여 여러분이 교학 시험을 준비하는데 더 쉽고 많은 즐거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Part I : 법화경(法華經)

(1) 법화경과 석존

석존의 출세의 본회

‘일체중생의 성불을 위해 설해진 경전이며 석존의 출세의 본회입니다.’

성불(成佛)의 법리

먼저 법화경에는 ‘일체중생의 성불을 가능케 하는 법리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에 ‘불계의 생명이 갖추어져 있다는 법리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만민에게 ‘불성(부처의 성분,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생 구제라는 대원에 살아가는 진실한 부처

법화경에는 ‘부처의 진실한 모습이 설해져 있습니다. 즉 수량품에는, 지금까지 석존이 금세에서 처음으로 성불했다(시성정각)고 말해 온 것은 임시의 모습이며 진실은 헤아릴 수 없는 과거에 석존이 성불한 이래 사바 세계 (참아야 할 세계를 뜻하며 현실 세계를 말함)에서 중생을 계속해서 구제하는 장원한 수명을 가진 부처(구원실성의 부처)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2) 법화경의 개요

적분과 본문

법화경 28품 중에, 서품 제1부터 인락행품 제14까지의 전반 14품을 ‘적문’이라고 하며, 중지용출품 제15부터 보현보살권발품 제28까지의 후반 14품을 ‘본문’이라고 합니다. 적문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방편품 제2이며 본문의 중심은 여래수량품 제16입니다.

개삼현일(開三顯一)

만인 성불의 길을 설하는 법화경을 일승 또는 일불승이라고 하는 것에 비해 법화경 이전의 여러 경에서 설하고 있는 성문도, 연각도, 보살도의 세 가지를 삼승이라고 합니다. 또 부처가 제경에서 삼승을 설한 것은 일불승을 밝히기 위한 방편(수단)이라고 법화경에 설해져 있는데 이것을 천태는 ‘개삼현일(삼을 열어서 일을 나타낸다)’이라고 했습니다.

(3) 법화경의 주요 법리

제법실상

방편품에 설해진 ‘제법실상’이란 상상하기도 힘든 부처의 깨달음을 굳이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제법(諸法)’이란 이 현실 세계에서 가지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입니다. 지옥계부터 불계까지의 모든 생명도, 각각의 생명이 사는 환경 세계도, 나아가 우주의 모든 현상도 모조리 제법에 포함됩니다. ‘실상(實相)’이란 ‘구극의 진리’입니다. 단 이 실상은 어딘가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별세계에 있는 것이라든지 구체적인 ‘제법’에서 동떨어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니치켄 대성인은 제법실상에 대해서 “지옥에서부터 불계까지의 십계(十界)의 중생과 그 환경 세계(제법)는 모두 妙法蓮華經(실상)의 나타남이다” (어서 1358쪽, 통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십계의 어느 생명이라도 또 십계의 중생이 사는 어느 세계라도 그 참된 모습은 묘호렌계교(妙法蓮華經)가 나타난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제법실상입니다. 이 제법실상이 설해짐으로써 일체중생이 평등하게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거의 분명해졌습니다.

이승작불

이 평등한 성불의 가능성을 명시하기 위해 적문에서는, 법화경 이전의 경전에서 강하게 부정된 ‘이승작불(성문에 대한 수기)’이 가능하다고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이 적문의 가르침은 법화경 이외의 모든 경전과 비교한다면 성불관의 혁명을 초래할, 실로 획기적인 가르침입니다. 다른 경전에는, 지옥계에서 보살계까지의 구계는 어디까지나 마혹의 경이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서 떨어져야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설해져 있는데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정도를 올라가면서 몇번이고 삶을 반복하여 수행을 거듭해야 한다는 역겁수행(歷劫修行)이 필요하다고 설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옥계에서 보살계까지의 구계와 동떨어져 있는, 불계의 경에만들 추구해 가는 제경의 사고 방식은 제법실상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제법실상이 설해짐으로써 십계의 중생은 모두 묘법(실상)의 당체로서 평등하게 불계를 구족하는 것이 되며 그 불계를 열면 성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실성

석존이 구원의 옛날에 성불했다는 것을 ‘구원실성(久遠實成)’이라고 하며 이 구원실성의 부처야말로 석존의 본지라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 석존이 과거세부터 가나긴 수행을 한 결과로 금세에 비로소 성불했다고 하는 ‘시성정각(始成正覺)’의 부처관·석존관은 임시의 모습이라 하여 부정되었습니다. 이전경과 법화경 적문에서는 석존이 인도에서 왕자로 태어나 출가하여 수행한 끝에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처음으로 부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처관·석존관을 ‘시성정각’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정각(正覺 부처의 올바른 깨달음)’을 성취했다는 뜻입니다.

이 시성정각의 부처관에서는, 가나긴 과거부터의 수행 결과로 금세에서 성불한 부처는 이것으로써 완성에 이르렀기에 입멸 후에는 전혀 다른 세계로 사라져 더 이상 현실 세계에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사상을 동반합니다. 이 사고방식을 부정하는 것이 수량품의 구원실성입니다.

만중구제를 하는 지용의 보살

또 지용의 보살은 구원실성의 석존이 구원부터 교화해 온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불해서도 오백진점겁이라는 멀고 긴 시간 동안 현실 세계에서 중생 구제를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 온, 구원실성의 석존을 스승으로 하여 스승과 같은 삶의 자세를 깊이 몸에 익혀 온 사제불이의 제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다른 보살처럼 단순히 자신의 성불을 공구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과 마찬가지로 현실 세계에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용의 보살은 상행(上行), 무변행(無變行), 정행(淨行), 안립행(安立行)이라는 4명의 도사(導師) 중생을 인도하는 스승가 인솔하고 있습니다. 4보살. 4명의 이름에는 모두 ‘행(行)’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제각기 현실 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의 자세를 나타낸다고 할 것입니다.

석존은 여러신력품 제 21에서 상행보살로 대표되는 지용의 보살에게 여래의 모든 법과 신력 그리고 그 실천을 의탁하여 멸후의 흥법을 부촉합니다. 이어서 축루품 제 22에서는 모든 보살과 제천에게도 멸후의 흥법을 부촉하는데 신력품에서 거행된 지용의 보살에 대한 부촉을 별부촉(別付觸), 축루품에서 거행된 모든 보살에 대한 부촉을 총부촉(總付觸)이라고 합니다.

이 부촉의 모습은 석존 멸후, 특히 악세 말법에 법화경을 흥통하는 주체자는 어디까지나 상행보살을 비롯한 지용의 보살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촉대로 말법의 법화경 흥통의 선구자가 바로 니치렌 대성인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제법실상초에는 “어떻게 하여서라도 이번에 신심을 다하여 법화경 행자로서 일관(一貫)하고 끝까지 니치렌의 일문이 되어 나아가시라. 니치렌과 동의(同意)란다면 지용의 보살이 아니겠느냐. 지용의 보살로 정해진다면 석존의 구원(久遠)의 제자라 함을 어찌 의심하리오” (어서 1360쪽)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을 신수하여 대성인 정신 그대로 광포의 실천에 힘쓰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지용의 보살인 것입니다.’

불경보살

이 불경보살의 실천은 석존이 성불하게 된 인(因)을 나타냄과 동시에 석존 멸후 법화경이 설하는 보살의 실천 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실천 자세로:

- 어디까지나 만인 성불을 확신하여 모든 사람을 존경할 것
- 24문자의 법화경처럼 간요의 법을 넓힐 것
- 신념을 관찰하면서 받게 될 박해를 참아 낼 것
- 신념의 투쟁으로 악세에서도 악에 휩쓸리지 않고 수명을 전환해 갈 것

등을 들고 있습니다. 대성인은 자신의 투쟁이 불경보살의 실천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Part II : 니치렌 대성인 어서(御書)

(1) 생사일대사혈맥초

다음 교학의 요점은 “대저 생사일대사(生死一大事)의 혈맥(血脈)이라 함은 소위 묘호렌게교(妙法蓮華經) 이것이니라” (어서전집 1336쪽)에 관한 것입니다.

생사일대사 혈맥의 의미

“생사일대사(生死一大事)의 혈맥(血脈)”에서 생사(生死)란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라면 가지는 끝없이 반복되는 생명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러한 존재론은 다시 태어나는 내세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며, 불교에서의 생과 사는 이런 윤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고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대사(一大事)」란 가장 근본인 간요(肝要)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생사일대사(生死一大事)」란 생명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가르침을 뜻합니다. 「혈맥(血脈)」은 부처에게서 제지인 인간에게 법이 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사일대사 혈맥(生死一大事血脈)」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생명의 구극의 법이 어떻게 부처에게서 중생에게 전해지고 생사(生死)를 되풀이하는 중생의 생명에 현현되어 가는가 라는 것입니다.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생사일대사의 혈맥이란 바로 남묘호렌게교라고 밝히셨습니다. (리빙부디즘 2006년 1-2월호, 17-18쪽 참조)

다음은 “구원실성(久遠實成)의 석존과 개성불도(皆成佛道)의 법화경과 우리들 중생의 셋은 전혀 차별이 없다고 깨달아서 묘호렌게교(妙法蓮華經)라고 봉창하는 바를 생사일대사의 혈맥이라고 하느니라. 이 일은 다만 니치렌(日蓮)의 제자단나 등의 간요(肝要)이며, 법화경을 가진다고 함은 이것이로다” (어서전집 1337쪽)에 대해 알아봅시다.

구원실성(久遠實成)의 석존

이 편지에서 니치렌 대성인께서 언급하시는 “구원실성(久遠實成)의 석존”이란 무량겁 나유타 이전의 과거에 성불한 이래로 사바 세계에서 고뇌에 허덕이는 중생을 구제해 온 부처입니다. 사실상 이 부처는 모든 생명 속에 내재하는 남묘호렌게교의 영원한 모습과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석가 부처는 우주의 근본법이 남묘호렌게교라고 깨닫는 것을 통해서 불계를 획득하였습니다. 무량겁 이전 과거에 성불한 석가모니 부처가 법화경에 나타나는 것은 영원한 남묘호렌게교와 하나된 생명에 내재한 불계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리빙부디즘 2006년 1-2월호, 18-19쪽)

모든 사람을 성불로 이끄는 법화경

이 편지에서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모든 중생을 불계로 이끄는 법화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법화경이야말로 모든 중생이 평등하게 불계를 얻을 수 있다고 설하는 유일한 경이기 때문입니다. 남묘호렌게교는 모든 중생이 불계를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 법입니다. 법화경 이외의 경에서는, 이승(성문계, 연가계)의 남성, 여성, 그리고 그릇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불계를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불의 근본인(因)은 묘호렌게교이므로, “모든 중생을 성불로 이끄는 법화경”을 묘호렌게교 그 자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리빙부디즘 2006년 1-2월호, 19쪽)

나치렌 대성인과같이 불계를 용현

보통사람으로써, 나치렌 대성인께서는 진실한 부처와 우주의 근본법과 우리들은 모두 묘호렌계교의 당체이며 따라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그의 전 인생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대성인께서는 그 묘법, 즉, 남묘호렌계교를 수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어본존을 나타내셨습니다. 따라서, 나치렌 대성인께서 서사하신 어본존에 대한 확신을 깊게하여 나치렌 대성인과 같은 마음으로 남묘호렌계교라고 창제해 나아갈 때, 우리는 대성인과 같은 불계의 생명을 용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리빙부디즘 2006년 1-2월호, 19쪽)

우리 생명이 바로 묘호렌계교의 당체라는 확신

법화경의 근본의 가르침은 부처와, 부처의 가르침(법화경)과 우리들 중생 셋은 묘호렌계교를 용현하는데 있어 전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화경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가르침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부처와 묘법과 우리들 중생이 전혀 차별없이 하나라는 확신으로 창제해 가면, 우리들 각자는 예외 없이 현세에 불계를 획득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공덕을 나타내겠다는 확신으로 창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을 통해서 생사 일대사의 혈맥을 상승할 수 있습니다. (리빙부디즘 2006년 1-2월호, 19-20쪽)

다음 어서 구절을 살펴봅시다. "결국 임종이 지금이라고 일어서 신심을 다하여 남묘호렌계교라고 부르는 사람을 「시인명종위천불수수(是人命終爲千佛受手) 영불공포 불타이취(令佛恐怖不墮惡趣)」라고 설하셨느니라. 기쁘도다, 일불(一佛) 이불(二佛)도 아니고 백불(百佛) 이백불(二百佛)도 아닌 천불(千佛)까지도 마중을 나오시어 손을 잡으실 것이니, 환희의 감류(感流)를 금할 길이 없도다. 법화 불신의 자는 「기인명종(其人命終) 입아비옥(入阿鼻獄)」이라고 설해져 있으니, 필경코 옥졸이 와서 손을 잡으리라 기쁘도다 기쁘도다. 십왕(十王)은 재단(裁斷)하고 구생신(俱生神)은 가락하리라. 이제 日蓮(나치렌)의 제자 단나 등 남묘호렌계교라고 봉창하는 자에게 천불(千佛)이 손을 내미시리라는 것은 비유컨대, 오이나 박이 덩굴손을 내미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라." (어서전집 1337쪽)

지금에 전 생명을 걸고

"임종이 지금이라고 깨닫고"라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러는 엄숙한 현실을 생명의 진실의 모습으로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 했을 때,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살아서 불법을 수지하고 있는 무게를, 빠져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임종이 지금"이라는 것은, 지금에 전 생명을 거는 것이며, 이러한 신심을 통해서, 우리는 묘법과 일체한 영원한 불계의 생명을 용현하며, 혈맥을 전수 할 수 있다고 대성인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리빙부디즘 2006년 1-2월호, 20쪽)

"과거에 법화경의 결연(結緣)이 강성하였기 때문에 현재에 이 경을 수지하니 미래에 불과를 성취할 것은 의심할 바 없느니라. 과거의 생사와 현재의 생사와 미래의 생사 이 삼세(三世)의 생사에서 법화경과 떨어지지 않는 것을 법화의 혈맥상승(血脈相承)이라고 하느니라. 방법불신(佛法不信)의 자는 「즉단일체세간불종(卽斷一切世間佛種)」이라고 하여 성불할 중자를 단절하는 고(故)로 생사 일대사(生死大事)의 혈맥이 없는 것이니라." (어서전집 1337쪽)

신앙의 지속

법화상승(法華相承)을 위해서, 우리들은 후퇴없는 신심을 과거 현재 미래세에 지속해야한다고 대성인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영원으로 지속되는 신심이란 현세에서 볼 때는 지금의 인생 끝까지 남묘호렌계교의 가르침인 법화경을 조금도 후퇴함이 없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리빙부디즘 2006년 1-2월호, 22쪽)

혈맥 상승은 신심의 이명(異名)

우리가 어본존에 대한 신심을 지속하며, 불계와 광선유포-모든 중생의 행복-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가는 한, 우리들은 법의 혈맥을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혈맥 상승이란 신심의 이명입니다. (리빙부디즘 2006년 1-2월호, 22쪽)

"나치렌(日蓮)의 제자 단나 등은 자타파차(自他彼此)라는 마음없이 수어(水魚)라고 생각을 해서 이체동심(異體同心)이 되어 남묘호렌계교라고 봉창하는 바를 생사 일대사의 혈맥(血脈)이라고 하느니라. 그리고 지금 나치렌이 흥통하는 바의 결론은 이것이니라. 만약 그렇다면 광선유포의 대원(大願)도 이루어질 것이니라. 더군다나 나치렌의 제자 중에 이체이심(異體異心)의 자가 있다면 예컨대 성인에 있는 자가 성을 파괴하는 것과 같으니라." (어서전집 1337쪽)

조화로운 이체동심의 신심을 통해서 혈맥을 전수

생사 일대사의 혈맥을 상승하기 위해서 나치렌 대성인께서 강조하신 것은 신심을 수행하는 조직에서 회원들 사이의 "이체동심"을 구축하는 것과 그 속에서 신심을 관철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체동심 없이는 모든 중생의 성불을 가능케 하는 법인 남묘호렌계교의 흥통은 있

을 수 없습니다.(리빙부디즘 2006년 1-2월호, 23쪽)

“이체동삼”의 의미

“이체”란 사람들의 다른 겉모습, 지위, 취향,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들 각자는 자신만의 고유한 재능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동삼”이란 모든 사람들이 같은 목적, 가치, 희망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화합 즉 다양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으로, 각자가 최대의 장점을 발휘해 가는 것이며, 혼자서는 쉽지 않습니다. 즉, “이체동삼”이란 각 부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전체적인 더 큰 힘을 내어 가는 것입니다. 니치렌 불법에서는 각자의 고유한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열정과 신심을 통해 광선유포를 향해 나아가며, 각자의 다양성을 조화롭게 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정신적인 유대입니다. “동삼”은 어본존에 대한 같은 신심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대성인의 목적, 즉 위대한 목표인 광선유포를 우리의 사명으로 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홍통의 진실한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대성인께서는 묘법을 흥통하려는 위대한 목표를 향한 노력이야말로 바로 인간의 아름다운 유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리빙부디즘 2006년 1-2월호, 24쪽)

(2)오니치노전답서

“부처는 참으로 존귀(尊貴)하여 재물에 의(依)하지 않느니라. 옛날 득승동자(得勝童子)는 모래떡을 부처에게 공양(供養) 드려서 아유 대왕(阿育大王)으로 태어나 일염부제(一閻浮提)의 주(主)가 되었느니라. 빈녀(貧女)가 자기의 머리를 잘라서 기름과 바쳤는데 수미산을 불어 뿔어버린 바람도 이 불을 끄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이 이삼(二三)의 업전은 일본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를 바치고, 칠보(七寶)의 탑을 도리천까지 쌓아올린 것 보다도 더하느니라.”(어서전집 1263쪽)

진심의 소중함

편지의 전반부에서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오니치노의 진심어린 업전공양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두 가지 불법 설화를 인용하시어, 불법의 공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심이라고 하십니다. 득승동자와 빈녀의 등불 이야기에서 명백히 알 수 있듯이, 진심이란 즉흥적으로 바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촉발되는 것입니다. 부처의 모습 본 것에 감사하여 득승동자는 모래떡을 부처에게 공양했습니다. 그의 공양에 대한 보답으로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득승동자도 알았지만 이기적인 이득을 얻겠다는 마음으로 공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래떡은 진심의 표현입니다. 빈녀는 등불의 기름을 구입하기 위하여 머리카락을 자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스로 진심어린 공양을 했던 것입니다.(리빙부디즘 2006년 3-4월호, 11-12쪽)

묘법의 힘

편지의 후반부에서, 대성인께서는 묘법의 위대한 힘을 “대지(大地)”, “대해(大海)”, “일월(日月)”에 비유하여 설명하십니다. 그의 비유에서 “법화경의 일자(一字)”는 법화경의 진실한 가르침이며, 남묘호렌계교 묘법입니다. 남묘호렌계교는 생명과 우주의 근본 법이며 우주의 법과 하나가 되는 부처의 생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남묘호렌계교의 묘법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의 불계를 융현할 수 있는 그 근본입니다.(리빙부디즘 2006년 3-4월호, 11-12쪽)

묘법은 대지(大地)와 같음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법화경의 일자(一字)는 대지(大地)와 같으니 만물(萬物)을 낳고”라고 하셨습니다. 묘법은 모든 현상의 근본법이며, 결코 현상과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묘법이 다양하게 발현된 모습입니다. 모든 생명은 고유하며, 묘법의 대지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바로 남묘호렌계교 그 자체라는 확신으로 남묘호렌계교를 봉창해 감으로써, 우리의 모든 행동을 묘법 근본으로 해 가며, 직면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조해 갈 수 있게 됩니다.(리빙부디즘 2006년 3-4월호, 12쪽)

대해(大海)와 같은 묘법

니치렌대성인께서는 “일자(一字)는大海(大海)와 같으니 중류(衆流)를 포함하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가르침은 묘법의 대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가 부처는 생명의 최고의 진리 즉 남묘호렌계교에 성불한 것을 바탕으로 많은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불법의 가르침들은 묘법이라는 하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비유는 불법 이외의 다른 철학과 가르침에도 또한 적용가능합니다. 모든 종교와 철학은 묘법의 체현인 인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남묘호렌계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묘호렌계교가 우주의 근본법이라는 확신으로 창제함으로써, 우리 생명속에 내재한 불지혜를 융현해 나아갑니다. 불지혜를 통해서, 다른 많은 가르침들을 지혜롭게 이용해 가며 우리 인생을 전진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리빙부디즘 2006년 3-4월호, 12쪽)

일월과 같은 묘법

“일자(一字)는 일월(日月)과 같으니 사천하(四天下)를 비추도다.”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당체를 묘법 근본으로 하였을 때 우리 주변 환경의 근본 성질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욕망과 집착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우리의 주변 환경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이, 진지하게 잘 생각해서 하는 행동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더 고통의 인을 쌓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내재한 불계에 대한 확신있는 창제를 통해서, 우리 속의 묘법의 태양을 떠올려 우리 생명과 주변 환경을 모두 명확하게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리빙부디즘 2006년 3-4월호, 12쪽)

오니치노의 절대적 행복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여인은 변하여 묘(妙)의 일자(一字)가 되고, 묘의 일자는 변하여 대상(臺上)의 석가불이 되느니라”. 여기서, “묘(妙)의 일자(一字)”는 남묘호렌계교이며, “대상(臺上)의 석가불”은 불계의 생명입니다. 연화는 흙탕물 속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곤란한 환경 속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조해 나아가는 불계의 생명을 상징하며, 어떠한 역경도 성장과 충실로 전환해 가는 기회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오니치노에게 묘법에 대한 진실한 신심을 통해서, 그치는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도 반드시 진실한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절대 행복의 경이를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다. (리빙부디즘 2006년 3-4월호, 12-13쪽)

(3) 일생성불초

모든 생명체 속의 묘리(妙理)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모든 생명체에는 묘법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남묘호렌계교라고 창제를 합니다. “중생본유(衆生本有)의 묘리(妙理)를 관(觀) 할지이다.”는 모든 생명을 지탱하는 우주의 근본법을 말합니다. 부처란 모든 생명의 근본은 바로 이 묘법이라는 것을 깨달아 성불을 이룬 사람입니다. (리빙부디즘 2006년 5-6월호, 12-13쪽)

남묘호렌계교의 의미

니치렌대성인께서는 모든 생명체에 내재한 묘리(妙理)를 남묘호렌계교, 즉 근본 법의 이름, 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이 법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은 이 묘법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즉, 남묘호렌계교라고 창제하는 것은 묘법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창제를 함으로써, 이 묘법을 깨달은 사람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리빙부디즘 2006년 5-6월호, 13-14쪽)

원품의 무명(無明)

묘법의 힘의 발현을 방해하는 작용을 불법에서는 원품의 무명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생명 속에 깊게 뿌리 내린 미혹 또는 무지입니다. 원품의 무명은 묘법에 대한 무지이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원인입니다. 우리 자신을 불행으로 몰고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원품의 무명은 모든 고통과 불행의 근본 원인입니다. 일단 우리가 묘법을 자각할 때, 그 순간 우리의 무명은 사라집니다. (리빙부디즘 2006년 5-6월호, 14쪽)

신심을 통해 원품의 무명을 극복

부처의 성불을 밝힌 법화경을 근본으로,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부처의 생명인 남묘호렌계교가 우리 모두의 생명 속에도 존재한다고 밝히셨습니다. 대성인께서는 일생에 걸친 투쟁을 통해서, 묘법이 생명체에 엄연히 존재한다는 진리를 온 몸으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우리도 남묘호렌계교를 용현해 내기 위해서는, 니치렌 대성인과 같은 마음과 결의로 창제를 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창제의 근본은 바로 원품의 무명을 씌워 없애겠다는 정신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신심의 정신입니다. 원품의 무명은 다양한 형태 즉, 의심, 불인함, 고통 등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오직 신심의 힘으로만 이것을 타파해 낼 수 있습니다. (리빙부디즘 2006년 5-6월호, 15쪽)

우리 생명 속에서 법을 구도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비록 우리가 남묘호렌계교라고 창제를 하지만, 남묘호렌계교가 우리 생명 밖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더 이상 묘법을 신심하는 것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그것은 열등한 법을 신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애에 불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들 각자는 “남묘호렌계교란 우리 생명 그 자체”라는 근본 확신을 길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남묘호렌계교를 이와 같은 확신으로 창제해 가야 하며, 그럼으로써 일생성불을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리빙부디즘 2006년 5-6월호, 16쪽)

우리 밖에 법이 있다고 생각

“민약 기심(己心)의 밖에 법(法)이 있다고 생각한다”의 구절은, 불법이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적인 것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부처와 보살은 존경하면서도 자신의 생명은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여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부처와 보살을 보통의 인간과는 다른 특별한 계층이라고 보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무리 강한 신심을 가진 것 처럼 보일 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묘호렌계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묘법 사이에 중간자(근본적으로 자신보다 훌륭하고 높다고 생각하는 자)가 존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차별적인 견해는 일련정중의 근본이며, 이것이 바로 대성인께서 말씀하신 “민약 기심(己心)의 밖에 법(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입니다.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이러한 관점으로 남묘호렌계교라고 창제하는 것은 절대로 일생성불을 위한 수행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리빙부디즘 2006년 5-6월호, 16-17쪽)

심성(心性)을 관(觀)

또한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불법의 가르침을 우리 자신 밖에서 찾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만행만선(萬行萬善)의 수행”을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웃의 재물을 세는 것 만큼 소용없는 일입니다. 결국,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런 이유로, 대성인께서는 우리 생명 속에 있는 근본법인 묘호렌계교를 확신하면서 심성(心性)을 관(觀)하도록 강조하십니다. (리빙부디즘 2006년 5-6월호, 20쪽)

무량(無量)의 고행(苦行)

민약 우리가 우리 생명 밖에서 법을 구한다면, 아무리 노력을 할지라도, 그 노력은 바로 “무량(無量)의 고행(苦行)”이 됩니다. 우리의 악업은 그대로 변화 없이 우리 생명에 남을 것이며, 모든 것은 더 큰 불행의 원인으로 되어 갈 것입니다. (리빙부디즘 2006년 5-6월호, 20쪽)

빈인계주(貧人繫珠)의 비유

친구의 의복의 뒷면에 보석을 꿰매어 주었으나, 그 사실을 모르는 친구는 일생을 유랑의 길을 떠나 고통의 나날을 보내었다는 법화경의 빈인계주의 비유가 상징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속에 무한대의 보물 창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일생동안 방황하는 불행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바로 니치렌 대성인께서 “기심(己心)의 밖에 법(法)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법을 찾기 위해 모든 곳을 찾습니다만, 정작 실제로 법이 존재하는 자신의 생명은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고통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묘호렌계교를 창제할 때, 위의 어서구결과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역경과 고난에 처할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성장의 찬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묘호렌계교의 힘을 느껴가는 것이며, 자신의 행복을 구축해 가는 길입니다. (리빙부디즘 2006년 5-6월호, 21쪽)

외도(外道)를 수행하는 것과 다를바 없음.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우리가 법을 자신의 밖에서 찾는다면, 아무리 길으로 훌륭하게 신심하는 듯 해도, 그러한 불도 수행은 외도(外道)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련정중에서 신심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묘사하신 부분입니다. 그들이 어본존을 모시고 같은 남묘호렌계교라고 창제를 하지만, 그들 신심의 근본은 승려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장례식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원해 달라고 승려에게 부탁하면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이 자신 밖에 있다고 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천태대사도 지관(止觀)에서 이에 대해 정확하게 언급하였으며, 대성인께서도 “불법을 배우고 외도(外道)로 된다고 창피를 주었느니라”라고 하시며, 바로 불법을 믿는 것 같지만 외도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언급하셨습니다. (리빙부디즘 2006년 5-6월호, 21-22쪽)

Part III: 일련정종의 잘못된 가르침을 논파

SGI는니치렌의대원에공헌한다.

광선유포 혹은 흥통은 니치렌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모든 수행자들을 위한 그의 위임이다. 니치렌은 어서를 통해서 “광선유포의 대원”(생사일대사혈맥초, 어서 1337쪽) 을 수행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어의구전에서는 “대원 이란 법화경의 흥통이다”(82쪽) 라고 쓰셨다. 이와같은 이유로, 창기학회는 설립이후로, 니치렌의 대원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하여 전세계의 평화를 지속하고,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니치렌 불법을 유포하는 데 공헌하여 왔다. 창기학회를 파괴하려는 중문의 시도는 광선유포의 일을 파괴하려는 중외외도 같다; 그것은 니치렌의 의도를 완전히 배반하는 행위이다. (리빙부디즘 5-6월호 2006, 57쪽 참조)

법주의 “절대 권위”를 논파

일련정종은 법주의 절대 권위라는 잘못된 교리를 주장한다. 니치렌과 그가 가장 신뢰하는 제자, 닛코가 쓴 어디에도 법주의 절대 권위나 성불을 얻기 위해 법주를 따라야 하는 필요성을 가르친 곳은 없다. 중문의 주장은 니치렌 불법에 완전히 위배된다. 닛코유계지문에는 “때의 관수(貫首)라 할지라도 불법(佛法)에 상위(相違)하여 기의(己義)를 세우면 이를 받아 들이지 말아야 할 것”(어서, 1618쪽) 이라고 닛코는 쓰셨다. 닛코의 이런 강한 성명은 법주의 절대 권위라는 사상을 명백하게 반박한다. (리빙부디즘 5-6월호 2006, 57쪽 참조)

법의 혈맥은 모든 사람들이 이어받을 수 있다.

일련정종은 니치렌의 내부의 성불과 묘법의 당체는 오직 법주만이 가질 수 있으며 단순히 입명받음으로써, 전수하는 의식을 통해서 계승되는 법주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법의 혈맥에 관한 잘못된 견해를 제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니치렌 불법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니치렌은 선정된 몇몇에게만 남묘호렌게교의 법을 갖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다. “생사일대사혈맥초”에서 그는 그의 마음을 명백하게 밝혔다. “일본국(日本國)의 일체중생(一切衆生)에게 법화경(法華經)을 받게 하여 성불(成佛)하는 혈맥(血脈)을 잇게 해 주려고 하는데.” (어서, 1337쪽) 니치렌 불법에서 법의 혈맥은 어본존의 신심, 남묘호렌게교의 묘법의 신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다. (리빙부디즘 5-6월호 2006, 57-58쪽 참조)

신심은 법의 혈맥이다.

“생사일대사혈맥초”에서 니치렌은 “신심(信心)의 혈맥(血脈)이 없이는 법화경(法華經)을 가질지라도 무익(無益)하니라”(어서, 1338쪽) 라고 결론지으셨다. 우리가 신심을 통해서만이 우리 내부로부터 법의 혈맥을 나타내고 그것을 이어갈 수 있으므로, 니치렌은 법의 혈맥의 기본은 신심이라는 것을 설명하셨다. 간단히 말하면, 법의 혈맥의 다른 이름은 니치렌 불법의 올바른 신심이라 할 수 있다. (리빙부디즘 5-6월호 2006, 58쪽 참조)

성불하는 것은 신행에 달렸다.

니치렌은 사람들의 성불은 살아있는 동인의 신행에 달려있다고 강조하셨다. 예를 들어, 그의 제자에게 쓰신 어서에, “과거(過去)의 자부(慈父)의 존령(尊靈)은 존생(存生)에 남묘호렌게교(南無妙法蓮華經)라고 불렀기 때문에 즉신성불(即身成佛)의 사람이니라”(우쓰 부사 부인 답서, 어서, 1423쪽) 라고 쓰셨다. 성불을 위해서는 승려가 장례식을 거행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일련정종은 명백히 니치렌 불법을 왜곡하는 것이다. (리빙부디즘 5-6월호 2006, 58쪽 참조)

모든 사람들의 평등은 니치렌 불법의 상징이다.

승려는 니치렌 불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 정신적인 능력면에서 일반 신도들보다 본질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일련정종은 주장한다. 그러나, 니치렌과 닛코는 성불을 하는 데 수행자의 능력이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고 결코 말씀하지 않았다.

니치렌은 승려와 일반 신도는 기본적으로 똑같다라고만 강조하셨다. 그는 어서에 “이 세상(世上) 중(中)에서 남녀 승니(男女 僧尼)를 가리지 말지어다. 법화경(法華經)을 수지(受持)하신 사람은 일체중생(一切衆生)의 주인(主人)이라고 부치는 보셨나이다”(시조강고전 부인답서, 어서 1134쪽) 라고 쓰셨다.

일반 신도들에 대한 승려들의 차별은 모든 사람들이 성불할 수 있도록 돕는 불법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시각을 잃었음을 나타낸다. (리빙부디즘 5-6월호 2006, 57-58쪽 참조) ■